‘천년고도’ 경주… APEC 성공에 세계 문화도시로 도약

시민 146만명 참여, 유치운동 결실
신라 문화·첨단기술 결합 K-APEC
경제효과 7.4조, 관광객 12% 증가
행정·시민 협력, 도시혁신 완성
‘포스트 APEC’ 전략 추진 본격화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엑스포대공원 APEC경제전시관에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 현장 투자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천년고도의 품격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행사는 경주가 ‘세계 속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 성장의 서사를 보여준 기록으로 남았다.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경제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보문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HICO) 일대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과 시민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고, 신라 천년의 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K-APEC 경주 모델’이 세계에 소개됐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021년 7월 APEC 유치 선언 이후 3년간 범시민 유치운동을 전개했다. 시민 146만 3,874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500회 이상의 지지선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도시를 변화시켰고, 경주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보문관광단지 일대는 회의장, 숙박시설, 도로, 공원, 조명 등 전면 정비를 거쳤다. 대릉원과 첨성대 일원은 미디어아트와 홀로그램으로 재탄생했고, 황남빵·곤달비나물·천년한우 등 지역 식재료가 정상 만찬에 오르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국내외 언론은 경주를 “세계가 주목한 문화도시”로 평가했다. 신라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APEC 개최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 4천억 원, 취업유발은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행사 기간 포함 올해 3분기에만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97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주는 MICE 산업 중심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APEC 성료 이후 ‘포스트 APEC 본부’를 신설해 전략기획·미래산업·디지털정책 등 3대 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며, “APEC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주는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경북도, 환경관리실태평가 전국 1위

지자체 중 유일, 전 항목 우수 평가
선제 점검·감시체계 환경사고 예방

경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도 김천시가 1위, 칠곡·울진군이 공동 3위, 의성·청송·고령군이 공동 4위, 경주시가 5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검사율, 고발률, 감시인력 교육 이수율 등을 기준으로 환경관리 개선도를 산출해 광역 및 그룹별 기초지자체 순위를 결정했다.

경북도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도는 3,51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며, 관할 172곳에서 2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 31건, 조업정지 20건, 경고 172건, 개선명령 20건, 과태료 6,500만 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북도는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 배출업소 특별집중점검 ▲상·하반기 정기 점검 ▲장마철·명절·미세먼지 등 취약 시기 특별감시 ▲시군 분기별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등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울진 “기차로 떠나는 가을바다 여행지”

동해선 개통 첫 ‘죽변항 수산물 축제’

울진군이 동해선 철도 개통 이후 처음 맞는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서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를 중심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를 ‘가을철 울진 관광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교통지원, 이벤트 등을 집중 운영 중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문어, 방어, 붉은대게, 오징어, 광어, 소라 등 동해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수산물 즉석 경매, 활어잡기 체험, 물회 퍼포먼스, 수산물 해체쇼, 어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 공연에는 이찬원과 황유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7~9일 울진군 죽변면에서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 축제’는 청정 바다의 제철 수산물과 울진의 자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식 관광축제로 마련됐다.(사진은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장 전경)

올해 1월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강릉 등 주요 도시에서 울진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교육청, 교육부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모든 지표 통과… 최고 교육청 입증

부산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며 최고 교육청으로서 위상을 다졌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해 최우수 교육청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라는 성과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 확보, 우수 사례 발굴·확산,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명, 함께 학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로 평가했다.

부산교육청은 특히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이주 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든 항목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전 지표 통과 및 최우수 교육청 선정 기록을 달성했으며 교육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장애아동 재활·돌봄 통합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열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디뎠다. 감각통합치료실 등 최첨단 재활시설과 의료진이 상주되어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중앙병원이 주관한 개원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의료계, 사회복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총사업비 122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천800㎡ 규모로 건립됐다. 언어·작업·물리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등 최첨단 재활시설을 갖췄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총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재활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산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내 10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행사에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1차 행사에서는 3만 5000여 명이 참여해 총 22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2차 행사에서는 환급 조건이 더 개선됐다. 행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총 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포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4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 경과보고와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올해 열린어린이집 93곳 선정

김해시는 부모 참여와 시설 개방을 강화한 열린어린이집 93개소를 올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모가 보육 프로그램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곳을 뜻한다.

선정 기준은 ▲공간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자체 자체적인 기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천시

금호초 복합시설 국비 확보

영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초 학교복합시설은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수영장·목욕탕·도서관·체육관·헬스장 등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8월 교육부 공모에서 국비 13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문체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4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